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

玄容駿·金榮敦

I

요마적에 이르러 靑少年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20세기 이전에는 靑少年期(adolescence)가 별로 문제되지 않았었다. 幼兒期(infancy), 兒童期(childhood)가 지나면 얼마없이 成人期로 돌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靑少年期的 獨自性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더구나 閉鎖的인 傳統社會에 있어서는 한 개인의 正體를 확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일 수 없었다. 한 가족이 宗教的, 社會的, 經濟的 機能을 온통 담당하기 때문이요 氏族關係를 통하여 正體의 내용이 대부분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장된 靑年期가 이 사회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마가레트·미드(Margaret Mead)여사가 사모아섬의 原住民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을 중심한 脫產業社會의 특징은 知識產業(knowledge industry)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社會構造가 갑자기 바뀌지고 短期間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道具的 價値(instrumental character)가 강조되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심한 자극을 받는다. 사람들 서로가 정답게 소통하는 表現的 性格(expressive character)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成功價値觀의 壓倒, 輕義重利的 實利觀등 道具的 性格으로 치닫는 社會文化構造 속에서 젊은이들은 正當性을 못 찾은 채 반항한다. 「即刻的 欲求滿足의 遲延」(deferment of immediate gratification)이라는 市民들의 良識이 젊은이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젊은이들의 反文化나 反抗은 어찌 보면 社會構造에 대한 반동이라기보다 美國中産層의 克己禁慾的, 成功志向的 價値觀이 젊은이들의 浪漫的 行動을 부채질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 미국등 세계의 젊은이들은 그리하여 物質的 安樂보다는 뜻 있는 自我實現(self-actualization)을 바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나라 젊은이들의 문제도 五十步百步다. 한국의 物質的, 可視的 改

1) Margaret Mead, *Coming of Age in Samoa*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28)

2) R. Flacks, "Student Activists: Result, not Revolt," in *Riads in Social Psychology Today* (Del Mar, California: CRM Books, 1970), pp.83-87.

變은 근래 그야말로 超速的이다. 불과 2~30년 동안에 일어난 韓國社會의 變化는 실로 西歐의 2~300년에 맞먹는다. 韓國은 이미 「고요한 아침의 나라」도 아니요, 「은둔자의 王國」도 아니다.³⁾ 역사의 단축현상으로 말미암은 逆機能은 크다. 産業間, 社會階層間, 地域間의 불균형 등, 사회구조의 격차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新舊價值觀이 混迷한다. 이른바 「非同時的인 것의 同時的 共存」(the contemporaneity of the non-contemporaneous)이다. 超現代的인 것과 前近代的인 것이 한꺼번에 흐르는, 말하자면 5백년이 한꺼번에 흐르는 상황에서 그렇다 할 文化規範과 價值觀이 확고할 수 없으므로 분명한 未來觀 또한 定立될 수 없다. 正體意識(sense of identity)이 도전 받는다. 自己에 대한 中心的 視覺과 方向, 곧 自己에 대한 一貫性 있는 意識을 잃음으로써 正體危機(identity crisis)가 심각해진다. 올바른 手段과 節次를 찾는 正當性(legitimacy)이 便法性이나 效果性(expediency)앞에 도전 받는다.

이리하여 이 나라 젊은이의 대부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主人意識, 곧 主體性을 잃고, 自我가 自我의 주인행세를 못한다. 韓國의 젊은이들은 내가 어디 서 있으며,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 「社會心理的인 支拂延期」가 젊은 시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구나 우리의 主流文化가 썩 가다듬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한 青年文化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형성돼 있지 않다. 또한 準律的(conforming) 部分文化가 있을 뿐이지 反文化 그 자체도 아니다.⁴⁾ 多元的 民主體制的 확립은 多元的 部分文化의 전전한 육성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전한 青年文化를 이 땅에 심어야 한다. 그리고 그 青年文化는 다른 모든 部分文化의 旗手의 機能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바람직한 青年文化의 定立은 우리에게 던져진 召命的 課題다. 그 자세와 방법은 여러모로 토의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그 많은 방법중의 하나로 우리의 文化遺產 가운데 전전한 青年文化 形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발굴하고 간추려내어 대폭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의 하나로 韓國 傳承 童謠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동요는 傳承童謠와 創作童謠로 나눌 수 있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대로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傳承童謠요, 어른이 아이들을 위하여 일부러 창작한 것이 創作童謠인데, 여기서는 傳承童謠만을 논의하려고 한다.

傳承童謠는 글과 눈으로써 이루어지는 創作童謠와는 달리, 말과 귀로써 전해지기 때문에, 口演으로써 傳承, 傳播되면서 非一回起性을 띤다. 民謠와 가장 가까운 같은 울타리의 口碑文學이면서도 성격상 民謠와는 거리가 있다.⁵⁾

3)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 法文社, 1974. 4, p.34.

4) 韓完相; 위의 책, p.97.

5) 金榮敦; 「韓國傳承童謠蒐集研究 經緯」,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0. 9. p.187.

① 傳承童謠와 靑年文化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둘 사이에 무슨 그렇다할 상관이 있을 수 있는가?

② 傳承童謠는 바람직한 靑年文化를 이룩함에 있어 이바지될 바가 과연 무엇일까?

③ 과연 韓國의 傳承童謠는 바람직한 만큼 수집되었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룩되었는가?

④ 傳承童謠 속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을 밝혀내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을 간추리는데는 이 몇가지 문제가 가로놓인다.

첫째 傳承童謠는 어린이의 것이지 靑年의 것이 아니다. 어린이, 곧 幼兒期와 兒童期의 것이다. 사람의 발달기준으로 본다면 前靑年期(preadolescence, 11세~13세)까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靑少年」이라 함은 幼兒期와 兒童期 및 前靑年期로 잡아 둔다. 확대해서 靑年期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어렸을 적에 이미 사람으로서의 바탕이 이룩될 뿐더러, 韓國傳統社會에 있어서는 靑年의 社會心理的 離乳現狀이 상당기간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해가 가면 어머니의 젖에서 떨어져 나가지마는 社會, 文化的으로는 아주 자라났어도 그 젖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外面的 物量的 變化가 한국의 경우 아무리 超速的이라 하더라도 아득한 옛날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끈질긴 傳承力이 口碑文學 속에는 흐른다. 필자들이 몇해동안 학생들과 더불어 제주도에서의 現地調査를 할 때 어린이들에게서 동요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도⁶⁾ 역시 그 끈질긴 傳承力에 연유하는 줄 안다. 이 점이 또한 傳承童謠와 靑年文化를 연계시킨다.

둘째 韓國의 傳承童謠가 오늘날 바람직한 이 나라 靑年文化의 定立을 위하여 이바지할 바가 과연 무엇일까의 문제다. 韓國의 靑年文化는 韓國의 風土·自然·文化와 韓國의 社會構造 속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좋은 싫든 한국을 떠나서는 한국의 靑年文化가 논의될 수도 없고, 논의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 나라 어린이들에게서 마련된 韓國의 傳承童謠는 그 슬한 세월을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 불러 오는 共同參與의 口碑文學이다. 이 땅의 自然·風土·文化·習俗을 바탕하여 오랜 옛적부터 가다듬어져 내려오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따뜻한 핏줄이요 숨결이요 꿈이다. 보라빛 幻想과 憧憬이 배어흐르는가 하면, 아름찬 그들의 意欲과 精神이 숨는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 오늘날 靑少年의 思考와 情緒의 바탕에는 傳承童謠의 숨결이 숨는다. 당면한 이땅의 靑少年問題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靑年文化의 定立을 위해서는 그 한 방편으로 傳承童謠에 담긴 그들의 意識을 살피는 것도 有益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셋째 그렇다면 이를 논의할 만큼 한국의 傳承童謠는 바람직하게 수집되었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룩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안타깝게도 그 수집·연구는 아직껏 본격화되어 있지 못하다. 독자적으로 동요를 수집했던 일이 거의 없는가 하면, 童謠論에 대한 단행본은 아직 한권도 나오질 않았다. 한국에서 자그마한 童謠集이 단행본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의 일인데서

6) 金榮教; 위의 논문, pp.196~198.

운한 것은 오늘날까지 嚴弼鎭·金素雲·朴斗鎭씨 등에 의한 단 네권에 불과하다.⁷⁾ 嚴弼鎭의 것은 한국 최초의 童·民謠集이긴 하지만 동요가 단지 80편만이 수록되었을 뿐이요, 金素雲의 동요집 두책은 그의 획기적 작업인 「朝鮮口傳民謠集」에서 꽤 많은 동요만을 간추려내어 꾸민 衛星的 產物이다. 朴斗鎭의 것은 벌써 나온 민요집 가운데서 동요 500여편을 골라내어 어린이들에게 읽히도록 꾸며낸 책이다. 결국 동요의 獨自的 集成은 아직까지 외면 당해 왔다는 이야기다. 동요는 그리하여 민요의 庶子格으로 끼어든 채 민요수집과 더불어 그 일부가 모아지고 민요론의 일부로서 그 이론이 띄엄띄엄 떠졌을 뿐이다. 민요와의 分家獨立은 이룩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傳承童謠蒐集研究史를 살피기 위해서는 민요 수집, 연구의 경위를 더듬어 볼 길밖에 없다. 이처럼 이나라의 동요가 아직 제대로 수집되어 있지 못하고, 그 이론전개가 거의 없는, 그 理論書는 단 한권도 갖질 못한 체계에 한국전승동요에 드러난 의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한계를 스스로 안게 된다.

넷째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青年의 意識을 밝혀내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① 이나라 傳承童謠의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한편 한편에 드러난 의식을 모조리 분석함으로써 통계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② 분류를 통한 題材別 分析이 있을 수 있겠고, ③ 主題別로 보아 그 의식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④ 傳承童謠의 變異, 곧 요마적에 이르러 어린이들이 부르기에 알맞는 곡조에다가 日常周邊과 社會를 비꼬는 사실을 끼어넣은 동요들이 고무줄놀이등의 유희와 함께 부르는 경향이 짙으므로, 이 새로운 諷笑的 遊戲謠가 純傳承童謠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피는 가운데 靑少年意識의 時代的 轉變相을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⑤ 동요 역시 地域差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말하자면 같은 놀이를 하면서도 그 표현방법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터이니까, 이를 통하여 그 의식을 간추려 낼 수도 있을 터이다.

한국전승동요의 수집이 아직 까마득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①을 시도함은 무리이겠고, ②③의 방법만을 시도하려 한다. ④⑤의 작업은 뒷날로 미룬다.

文化規範과 價値觀의 混迷로 正體危機(identity crisis)에 직면하기 쉬운 젊은이들로 하여금 自我를 확립하고 건전한 靑年文化를 심어 넣는 데 자그마한 方便이라도 마련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7) 嚴弼鎭; 「朝鮮童謠集」, 彰文社, 1924. 12.

金素雲; 「朝鮮童謠選」, 岩波書店, 1933. 1.

金素雲; 「口傳童謠選」, 博文書館, 1940. 5.

박두진; 「한국전래동요독본」, 울유문화사, 1962. 10.

II

傳承童謠는 무엇을 題材였는가? 그 제재를 분석해 나갈 때 그에 담긴 意識이 대충 드러날 것이다. 어린이들은 새나 꽃을 보았을 때, 짐승이나 벌레와 마주쳤을 때, 눈과 비가 내릴 때, 벗들과 더불어 즐겁게 놀 때, 재미 있는 말장난을 하며 즐길 때, 머리를 팍팍 깎거나 이빠진 애를 놀려 주고 싶을 때, 어린 아기를 잠재울 때 노래한다.

그 題材를 쉽게 살필 수 있는 한 방법으로는 전승동요를 어떻게 분류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전승동요를 맨처음 분류한 이는 金素雲이다. 金素雲은 그의 國文版「口傳童謠選」(博文書館, 1940.5)에서 이 나라 傳承童謠를 ① 父母·兄弟, ② 天體·氣象, ③ 蟲鳥, ④ 呪唱·動作, ⑤ 諷笑·諧諷, ⑥ 遊戲, ⑦ 雜, ⑧ 童女謠, ⑨ 追慕로 나누었다.⁸⁾

전승동요가 민요집 속에 처음으로 독립된 항목으로 끼어들기 시작한 것은 方鍾鉉·金思燁·崔常壽共編의「朝鮮民謠集成」(正音社, 1948.11)에서다. 민요를 婦謠·男女共謠·男謠·童謠·其他謠 등으로 나눠 실는 가운데, 동요 57종을 명면적으로 실었을 뿐이지, 그 분류를 펴한 바 없다.

한국동요를 체계 있게 細分한 경우는 任東權의「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 1961.6)에서다. 한국의 민요, 동요를 362형으로 나누면서 이에 대한 主見도 밝힌 바 있지만⁹⁾ 1961년에 동요 862편을 수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가. 動物謠 (A. 鳥類謠, B. 짐승謠, C. 昆虫謠, D. 魚類謠)
- 나. 植物謠 (A. 나무노래, B. 풀노래, C. 採菜謠)
- 다. 戀母謠
- 라. 愛撫와 자장謠 (A. 자장謠, B. 愛撫謠)
- 마. 情緒謠 (A. 家族謠, B. 感傷謠, C. 情婚謠)
- 바. 自然謠
- 사. 諷笑謠
- 아. 諧戲謠
- 자. 數 謠
- 하. 遊戲謠

8) 金素雲의 경우 日語版 「朝鮮童謠選」(岩波書店, 1933. 1)에서는 ①天體·氣象, ②鳥의謠, ③魚や虫の謠, ④植物の謠, ⑤父母·兄弟, ⑥諷笑·諧諷, ⑦遊戲의謠, ⑧雜謠, ⑨童女謠, ⑩子守唄로 나누었다.

9) 任東權; “民謠分類의 方法”,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3. pp.31-52.

6 는 본 질

어린이들에게 즐겁게 읽히기 위하여 펴낸 박두진의 「한국전래동요독본」(한국아동문학학
본 10, 을유문화사, 1962, 6) 에서는 511편의 동요를 간추려 모으고 주석까지 달았는데, 거기에
서는 동요를 16종으로 나누었다.

- | | |
|------------|----------------|
| I. 자연의 노래 | II. 더위노래, 추위노래 |
| III. 나무노래 | IV. 풀노래 |
| V. 나물노래 | V. 꽃노래 |
| VI. 새노래 | VI. 곤충노래 |
| VII. 짐승노래 | VII. 어류노래 |
| VIII. 자장노래 | VIII. 사랑노래 |
| IX. 가락노래 | IX. 유희노래 |
| X. 놀려주기 | X. 그밖의 노래 |

한 지역의 민요·동요를 집중적으로 모아 분류하고 표준어로 번역까지 시도한 바 있는 金榮教
의 「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 1965. 12)에서는 152편의 동요를 다음의 분류법에 따르면서
나누어 실었다.

- | | | |
|----------------|-----------------|--------------|
| 一童謠 | 1. 짐승과 벌레노래 | A. 꿩 |
| | | B. 까마귀 |
| | | ⋮ |
| | | N. 其他 |
| | | 2. 애물 놀리는 노래 |
| B. 이 빠진 애물 놀리며 | | |
| C. 울던 애물 놀리며 | | |
| 3. 놀이하는 노래 | A. 보리피리틀 만들며 | |
| | B. 쇠비름 뿌리틀 두드리며 | |
| | ⋮ | |
| | H. 원님놀이 하며 | |
| 4. 비노래 | | |
| 5. 其他童謠 | | |

- 二. 자장가
三. 語戲謠

동요의 大宗은 動植物謠(짐승과 벌레노래)· 諷笑謠(애물 놀리는 노래)· 遊戱謠(놀이하는 노래)
· 天體氣象謠(비노래)이므로, 이를 하나로 묶어 좁은뜻의 동요로 하고, 노래하는 주제나 노래
의 제재가 유다르다고 볼 수 있는 자장가와 語戲謠는 따로 分立한 것이다.

일본의 柳田國男은 동요(童歌)를 자장가, 유희요 등으로 나눈 바 있으며,¹⁰⁾ 志田義秀는 1906년의 「日本民謠概論」에서 동요(兒童歌)를 유다르기도 「活動的 遊戯歌」와 「靜止的 遊戯歌」로 나눈 바 있다.¹¹⁾ 무려 2만5천편의 동요를 읽으면서 꽤 많은 노래단을 간추려 분석한 藪田義雄은 동요를 자장가(子守唄)등 여덟가지로 나눈바 있다.¹²⁾

일본의 경우는 걸쳐 두기로 하고 韓國傳承童謠의 분류는 그 타당성으로 보아 ①動植物謠, ②天體氣象謠, ③遊戯謠, ④諷笑謠, ⑤遊戯謠, ⑥자장가, ⑦其他謠로 나누는 게 무난할 듯하다. 한국전승동요의 實狀을 살핀 위에 몇분들의 분류를 참고하고 마련된 필자 나름의 分類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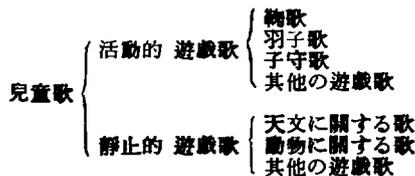
이 分類案에다가 金素雲·任東權·박두진의 분류를 대입시켜 본다면, 한국전승동요의 題材가 대체로 부각되어 드러날 것이다. 그 分類對比表를 다음 일람으로 보일가 한다.

韓國傳承童謠分類對比表

金榮敦 分類案	金素雲 「口傳童謠選(1940)」 「朝鮮童謠選(1933)」	任東權 「韓國民謠集」1961」	박두진 「한국전래동요독본」(1962)
① 動植物謠	③蟲鳥 { ②鳥의謠 ③魚や蟲의謠 ④植物의謠	가. 動物謠(A. 鳥類謠 B. 짐승謠 C. 昆蟲類 D. 魚類謠) 나. 植物謠(A. 나무노래 B. 풀노래 C. 採菜謠)	VII. 새노래 VI. 꽃노래 VIII. 곤충노래 IX. 짐승노래 X. 어류노래 III. 나무노래 IV. 풀노래 V. 나물노래
②天體氣象謠	②天體·氣象(①天體·氣象)	바. 自然謠	I. 자연의노래 II. 더위노래, 추위노래
③遊戯謠	⑥遊戯(⑦遊戯의謠)	차. 遊戯謠	XV. 유희노래
④諷笑謠	⑤諷笑·諧謔(⑥諷笑·諧謔)	사. 諷笑謠	XV. 놀려주기

10) 그의 「民謠覺書」(東京, 創元社, 1940. p.324)에 따르면, 동요를 子守唄·遊ばせ唄 手毬唄·御手玉唄 등으로 나누고 있다.

11) 志田義秀의 분류표를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藪田義雄의 분류는 子守唄·手毬唄·手玉唄·歳事唄·天體氣象의唄, 動物植物의唄, 惡口唄·まじない唄 등이다. (藪田義雄; 「ゆらべ唄考」, 東京: カワイ樂譜, 1966. 7. 序參照)

金榮敦 分類案	金素雲 「口傳童謠選(1940)」 「朝鮮童謠選(1933)」	任東權 「韓國民謠集(1961)」	박두진 「한국전래동요독본」(1962)
⑤ 語 戲 謠		아. 語戲謠 자. 數謠	
⑥ 자 장 가	(⑤ 父母·兄弟) (⑩ 子守唄)	라. 愛撫와 자장謠 (A. 자장謠 B. 愛撫謠)	XI. 자장노래
⑦ 其 他 謠	① 父母·兄弟 ④ 呪唱·動作 ⑦ 雜(⑧雜謠) ⑧ 童女謠(⑨童女謠) ⑨ 追慕	다. 戀母謠 마. 情緒謠(A. 家族謠 B. 感傷謠 C. 情戀謠)	XII. 사랑노래 XIII. 가족노래 XIV. 그밖의 노래

이 對比表를 볼 때에도 필자의 분류가 크게 무리 없음이 드러난다. 金素雲은 1933년에 日文版「朝鮮童謠選」을 내었을 때의 분류와 國文版「口傳童謠選」(1940)에서의 분류가 다르다. 「朝鮮童謠選」의 분류는 ()에 넣어 分類對比表에 기입하거나, 이를 보아 잘 알 수 있듯, 1933년에는 植物謠·자장가(子守唄)를 설정했다가 1940년에는 이를 빼었다. 양쪽 모두 語戲謠는 인정하지 않고 雜謠 속에 포괄시켰다. ④ 呪唱·動作은 呪術의 노래와 가벼운 遊戲謠를 말하는 것이며, ⑨ 追慕는 돌아간 부모를 그리는 노래다. ⑧ 童女謠는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동요라기보다 오히려 민요에 포괄시키는 게 타당할 것이다.

任東權은 動植物謠를 ㉠動物謠, ㉡植物謠로 나눈 다음, 이를 또 細分했으며, ㉢數謠는 ㉣語戲謠에 포괄시켜도 괜찮은 것이다. ㉤戀母謠, ㉥情緒謠의 독립여부만이 문제이지, 나머지는 필자의 分類案과 차질이 없다.

박두진은 動植物謠에 큰 비중을 두었다. (VII)새노래, (VIII)곤충노래, (IX)짐승노래, (X)어류노래 등은 모두 動物謠인데 動物謠 하나로 묶은 게 아니라, 아예 각각 독립시켰다. (III)나무노래, (IV)풀노래, (V)나물노래, (VI)꽃노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植物謠로 묶질 않고 각각 따로 내세웠다. 動植物謠 하나로 묶어도 되고 動物謠·植物謠쯤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게 보통일 터인데 무려 여덟 종류의 노래로 나눈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天體氣象謠를 (I)자연의 노래, (II)더위노래·추위노래로 나눔으로써 더위·추위를 내세웠는가 하면, 語戲謠는 따로 독립시키지 않은 채 (IX)그밖의 노래에 포괄시켰다.

이렇게 보아 간다면, ⑦ 其他謠 가운데서 戀母謠(父母·兄弟, 追慕, 사랑노래), 呪術謠(呪唱)와 家族謠·情緒謠 등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을지의 여부만이 문제된다.

여차피, 韓國傳承童謠의 主宗은 動植物謠·天體氣象謠·遊戲謠라는 이야기다. 이제까지 장황하게 전승동요의 분류를 두고 살펴 본 까닭도 바로 그 主宗이, 그 主題材가 무엇인가를 살펴려는 것뿐이다. 諷笑謠나 語戲謠는 대부분 일종의 말놀이이기 때문에 넓은 뜻으로 보면 遊戲謠에 포괄시킬 수 있고, 자장가는 어린이물, 특히 젖먹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노래이지만, 그

대상이 그렇다는 것뿐, 이를 부르는 이는 어린이 자신이 아니라 그 업저지나 어머니 할머니들, 곧 어린애를 돌보는 어른들이다. 새근새근 잘 자라든가, 어서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내용의 노래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는 업저지 자신의 신세타령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지마는¹³⁾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노래하는 그 主体가 어린이자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장가를 제쳐 두면 動植物謠·天體氣象謠·遊戯謠 등이 전승동요의 主宗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린이들은 오리나무·감나무·피나무·산나무·갓나무 등의 나무를 노래하는가 하면, 감박쟁이·박감쟁이·풀레바퀴·민들레·돌이바퀴·고리바퀴·파리·색시풀·솔부리·외풀·외참외풀·쇠비름뿌리·파리 등의 풀을 노래하고, 깨곤·고들빼기·고사리·콩·고리나물·넙나물·달래·도라지·대싸리·민들레·냉이(나싱계)·썰레·돈나물 등의 나물을 노래하며, 호박꽃·박꽃·접시꽃·양귀비 등의 꽃을 노래한다. 이러한 나무·풀·나물·꽃에 대한 노래는 植物謠로 묶을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또한 수많은 動物謠를 지니고 있다.

까치·까마귀·평·피꼬리·기러기·낙낙새·닭·매·바꿈새·뼈꼭새·부엉이·솔개·송낙새·제비·파랑새·종골새·종달새·종곰새·주랑새·죽지새·참새·황새 등의 새를 노래하는가 하면, 개똥벌레·개미·거미·나비·누에·메뚜기·매미·바구미·박풍이·방아깨비·이·잠자리·풍뎅이·개똥벌레·땅개비 등의 곤충을 노래한다. 개구리·달팽이·맹꽁이·두꺼비·뱀·개·고양이·나귀·다람쥐·돼지·쥐·박쥐·토끼·호랑이·송아지 등의 짐승을 노래하고, 가재·자라·게·소라·우렁불락·생선 등의 魚貝類를 노래하기도 한다. 動物謠·植物謠를 합쳐 動植物謠로 묶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또한 해·달·별·산·바위·물·바람·이슬·비·눈·더위·추위 등의 天體氣象을 노래한다. 動植物謠와 天體氣象謠는 自然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되며 自然謠라 해서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이 自然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어린이들과의 상관 속에서의 自然이다.

- | | |
|---------|--------------------------|
| ① 해야 해야 | 붉은 해야 |
| 김치국에 | 밥 말아먹고 |
| 장구치고 | 나오너라 (威北) ¹⁴⁾ |

구름에 가리워졌던 태양이 어서 시뻘겋게 얼굴을 드러내길 바라면서 부르는 동요. 구름 속에 해가 가리워졌음은 배고픈 탓이라고 연상하면서, 어서 배불리 밥먹고 얼굴 내밀길 바란다. 시

13) 藪田義雄: 「やらべ限考」, 東京: カワイ樂譜, 1966. 7. pp.10-82.

14) 金素雲: 「口傳童謠選」, 博文書館, 1940. 5. p.13.

떨진 태양빛에 흥분되면서 장구소리를 연상했다.

② 저 견네 밭들에 이슬이 반짝
 우리 오빠 팔목에 금시계를 반짝
 풀잎에 이슬은 풍그르릉
 우리 오빠 자전거는 프르르릉 (珍鳥)¹⁵⁾

視聽覺의 映像을 동시에 交合시키면서 깔끔하고 선명한 인상을 주는 노래다. 이슬의 반짝거리면서 오빠의 팔목에 낀 금시계를 연상했고, 이슬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에서 자전거의 울림을 연상했다. 금시계와 자전거는 어린이로 보아서는 한갓 쫘미다.

③ 앞의 가는 건 도둑놈이여
 조름에 가는 건 순서여
 (濟州 中文面 中文里, 女75, 李英玉)¹⁶⁾

語釋; 앞에 가는 건 도둑놈이네
 풍무니에 가는 건 순사네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며 노래한 것. 굳이 앞서려고만 서로 앞다투지 말고 先後를 바꾸며 사 이 좋게 날아가길 바라면서 은근히 人間秩序를 노래하고 있다.

④ 게아잡아 게아잡아
 이밥 해줄께 얼른 놓아라 (忠南·慶南地方)¹⁷⁾

바닷가에서 놀다가 게에게 손을 물렸을 때, 놓아 주기를 바라면서 중얼거리는 동요. 이밥을 해 주겠다고 달래는 게 더욱 어린이답다.

天体氣象을 題材하든, 動植物을 題材하든 이처럼 한결같이 어린이 세계와 관련된다. 어린이들의 思考나 情緒와 상관됨으로써 그 노래의 대상은 뜻을 지닌다. 自然을 쳐다보기만 하면서 노래하는가 하면, 붙잡고 놀면서 노래하기도 한다. 쳐다보기만 하며 놀든, 붙잡아 놀든, 놀이인 것만은 확실하므로 靜的인가 動的인가의 차이만이 있을 뿐, 모두가 놀이라는 점에선 일치한다. 구름에 가리워진 해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노래하든, 게에게 손이 물렸을 때 노래하든 어린이들로서는 마냥 즐겁기만 한 遊戱인 셈. 이렇게 보면 動植物謠 역시 넓은 뜻으로는 遊戱謠에

15) 丁益燮; “童謠”, 韓國文化人類學會,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 文化財管理局, 1969. 8. p.740.

16)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12. p. 375.

17) 박두진; 「한국전래동요독본」, 을유문화사, 1962. 10. p.208.

포괄된다. “傳承童話는 곧 遊戲童話” —이런 命題가 정립될 수도 있다. 다만, 그 遊戲는 天體氣象이나 動植物을 대상하기 때문에 自然을 대상한다는 점이 유다르며, 集團遊戲에 따른 노래도 많다. 따라서 “傳承童話는 自然을 무대로 하거나 집단적 놀이 그 자체를 위한 遊戲童話” —이러는 게 더욱 구체적이겠다.

自然은 神의 작품이다. 그들은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神의 작품인 大自然의 神秘와 秩序를 배운다. 人間들의 작품밖에는 거의 볼 수 없는 都市의 어린이들, TV에 거의 매달려사는 요새의 어린이들과는 썩 다르다. 들판에 아무렇게나 핀 아기자기한 꽃, 자그만 곤충들의 움직임 을 관찰하는 가운데 道德과 神性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 골목과 들판을 한껏 누비면서 例外라고는 있을 수 없는 大自然의 法則을 엄숙하게 익힌다. “自然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다”¹⁸⁾는 眞理를 터득한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自然의 道와 人爲的인 노력으로 이룩할 수 없는 自然의 德”¹⁹⁾을 깨닫는다. 神이 써 놓은 책인 自然에서 인간을 배운다. 그리하여 그들은 教育의 힘보다 더 큰 自然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난다. 自然을 통해서 神性和 秩序와 道德과 眞理를 터득할 뿐더러 그 自然을 발판으로 한 놀이를 통하여 정서의 건전한 발달을 이룩한다.

思考와 感情이 未分化的이고 情緒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하면, 한 행동에 온 마음을 쏟는 幼兒期에 있어서는 情緒가 그들의 생활전체를 지배하는데²⁰⁾ 大自然을 발판으로 한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全般의 人格이 조화롭게 발달된다.

그들의 놀이는 非機能的이다. 놀이는 興味가 직접적이고 活動 그 자체가 목적이다.²¹⁾ 活動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놀이는 結果를 고려함이 없이 그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인 것이다.²²⁾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고향이 없는가 하면 놀이가 없다. 놀이가 있다 하더라도 T. V에 매달려 있거나, 불건전한 장난감이나 야유적인 놀이에 휩쓸리기 일쑤다.

어린이들은 놀이와 함께 자란다. 놀이는 어린이의 身體的 發達을 극력 돕는가 하면 어린이로 하여금 주위환경의 意味를 知覺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놀이는 또한 어린이로 하여금 자기의 行動에 대해 全的 責任을 지지 않고도 제 能力을 저울질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한다. 놀이는 社會的 發達을 하게 하는가 하면, 教育的 價値를 지니며, 治療의 값어치도 따른다. 놀이는 어른으로 하여금 어린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道德

18) “Nature admits no lie”. Thomas Carlyle, *Letter Day Pamphlets*, No.5.

19) “道不可致 德不可至” (莊子：外篇 第二十二 知北遊)

20) 金正律; 「兒童發達과 教育」, 學文社, 1977, p. 177.

21)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1928), p. 241.

22) E. B. Hurlock, *Child Development*, 3rd ed., (N. Y. : London : McGraw-Hill Book, co., 1956), p.321.

的 訓練을 쌓는 데도 크게 이바지 한다.²³⁾

따라서 傳承童謠는 건전한 人格을 길러내는 데 있어 그 바탕을 이룬다. 동요자체가 거의 遊戲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구나 自然을 무대로 한 遊戲謠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III

다음에는 몇몇 童謠集과 民謠集 속의 동요를 보아 가면서 그 主題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意識을 보기로 하겠다.

민요에서만큼 동요에서는 그 民衆意識이 뚜렷하질 않다. 동요는 민요와 썩 가까운 편이긴 하지마는, 엄격히 따지면 어린이들만의 노래이므로 민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요는 다른 口碑文學에 비해서도 가장 民衆的이요, 自足的 性格을 띠면서 機能的인가 하면 地域的 性格 또한 두드러지다. 따라서 그 地域, 그 民族의 民衆意識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모든 특징이 동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民衆的이긴 하지마는 어린이들만의 노래이므로 이를 뚜렷이 드러낼 바 못 되고, 自足的 性格이야 떠었다손치더라도 그 機能은 별로 없다. 어린이들은 勞動에 종사하거나 儀式을 치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機能謠의 大宗인 勞動謠나 儀式謠가 동요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童謠의 題材나 表現樣相에 차이가 드러나는 하지마는 민요처럼 그 地域性이 뚜렷하지도 않다. 따라서 동요를 통하여 民衆意識을 살펴내는 일이란 민요에서처럼은 절실하지 않다. 그런대로 동요 各篇의 主題를 살펴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意識을 추출해 본다.

나비나 개동벌레를 잡으며, 해·달·별을 쳐다보며, 고사리를 꺾고 도라지를 캐며 부르는 그들의 동요에는 별다른 主題란 있을 수 없다. 語戲하는 노래, 父母兄弟愛를 노래하는 노래에도 유다른 主題가 있을 수 없는가 하면, 자장가가 상당수 드러나지마는 이는 그 史的系譜로 보아, 웅고집타령이나 沈淸歌에 드러나는 그대로 자식의 귀여움과 탈 없는 成長, 大成을 빌 뿐이다.

다시 강조하거나와 韓國傳承童謠의 蒐集研究는 거의 방치상태에 놓였음을 증시해야 한다. 동요수집이 이뤄지기 시작한 192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그 수확을 정리해 보아도, 일부 非体系的인 성과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靑少年의 意識을 살펴내기에는 썩 미흡하다.²⁴⁾

23) 金正律; 앞의 책, pp.209-211.

24) 金榮教; “韓國傳承童謠蒐集研究經緯”,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0. 9, pp.185-209.

미흡한 대로 嚴弼鎭·金素雲·박두진의 동요집 배권을 비롯하여, 동요가 끼어든 중요민요집 여덟권²⁵⁾의, 동요가 끼어든 口碑文學集成이나 조사보고서 및 학술지,²⁶⁾ 그리고 띄엄띄엄 발표되었던 동요론과 민요론²⁷⁾에 드러나는 意識을 살살이 살피다가 보니 (1) 隣助協同意識, (2) 同類意識, (3) 樂天的 生活意慾, (4) 水平的 民主意識, (5) 秩序意識과 더불어, (6) 아름다운 꿈과 (7) 깊은 愛情이 드러난다.

이제 그 例謠를 들면서 靑少年의 意識을 살펴 보기로 한다.

31. 隣助協同意識

⑤ 두껍아 집 지어라
황새야 물 길어라 (利川地方)²⁸⁾

⑥ 가가 가다가
거거 거렁에
고교 고기잡아
구구 국고려서
나나 나하고
너너 너하고
노노 노너덕자 (忠北)²⁹⁾

⑦ 건는편 사둔덕
거언너 오셔서
곰패떡 잡습구
김치국 마시조 (黃海)³⁰⁾

⑧ 배야배야 커가라
앞집뒷집 부자다
주는대로 묵구료 (慶南)³¹⁾

⑨ 형의집에 갔드니
고기국에 이밤하여

25) 金榮教; 嶺南文, p. 191.

26) 金榮教; 嶺南文, pp. 193-199. (⑬~⑭)

27) 金榮教; 嶺南文, pp. 199~206. (⑮~⑯)

28) 박두진; 앞의 책, p. 282.

29) 金素雲; 앞의 책, p. 118.

30) 金素雲; 앞의 책, p. 69.

31) 金素雲; 앞의 책, p. 36.

혼자들만	목드라
우리집에	와서봐라
고기한첩	안줄테다 (大邱地方) ³²⁾
⑩	
뭐 먹-고	살았노?
돼-지 먹고	살았지
무슨 저로	죽었노?
쇠-저로	죽었지
누강누강	죽었노?
나 혼자	죽었지
꿀꿀	돼지 (慶州地方) ³³⁾
⑪	
어깨동무	찌개동무
계사집에	가는동무
한잔주면	눈물나오
두잔주면	웃음난다 (靑恩地方) ³⁴⁾

協同隣助意識이 드러나는 동요 몇편이다. ⑤는 어린이들이 여름날 모래로 집짓기 장난을 하면서 부르는 동요. 세상 온갖 일은 혼자 이룩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 協業해야만이 달성됨을 노래한다.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술한 분들이 물을 길어 날라야만 흙을 찌고 새벽할 수 있음을 어린이들도 의식하고 있다. 語戲謔인 ⑥에서는 고기를 잡아 국 끓이고도 너와 나와 나눠 먹음이 의당 옳다는 의식이 무의식한 가운데 드러나 있다. ⑦에서 보이는 사돈택에 대한 극진한 禮遇야 옛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습속인가 하면, 이웃끼리 언제나 相扶相助한다는 것은 극히 광연한 도리로 알면서 ⑧에서는 이를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그런데도 더구나 형집에 갔더니, 맛 있는 음식을 저들만 먹으면서 안 주더란 非情을 ⑨에서는 날카롭게 비꼬는다. 人倫의 바탕인 兄弟間의 友愛가 허물어져감을 통렬히 고발하고 있다. 돼지고기를 혼자 먹고 지냈더니 돼지나 뭐가 다를 바 있겠느냐고 ⑩에서는 통박하는가 하면, 한국사회에서 우세한 親族集團을 어린이들도 의식하고 있는 ⑪에서의 3, 4행은 속담의 混入이기도 하다.

兒童期에 이르면서 어린이들은 혼자 노는 일에 재미를 잃는가 하면, 集團競技에 대한 흥미가 갑자기 인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遊戲는 일반적으로 흥미가 없어진다.³⁵⁾ 남과 더불어 노는 가운데 安定感을 얻는가 하면, 協同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 利己的이며 自己中心的이며 眼下無人的 態度가 점차 止揚되는 가운데 社會中心的 利他的 行動을 배운다. 自己中心的 利己的 行動과 社會中心的 利他的 行動이 平行線으로 드러난다. 이 두 종류의 行動樣式은 아주 正

32)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6. p.447.

33) 박두진; 앞의 책, p.197.

34) 金思燁·崔常壽·方鍾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11.

35) 張秉琳; 「兒童心理學」, 法文社, 1977. 9. p.131.

常的인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³⁶⁾ 그래서 ㉔이나 ㉕에서는 隣助協同과 더불어 自己中心的인 思考도 보인다. 自己中心的인 利己的인 行動이 억압당하게 되면 社會的인 不適應을 불러일으킬 우려마저 있다. 놀이를 통하여 自己中心的(egocentric)인 思考를 지닌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기를 表出하는 기회를 지닌다. 또한 놀이에 의하여 社會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寬容化, 協同化의 정신을 배운다. 構成的인 想像(constructive imagination)을 기쁨으로써 우리들 주변의 事物에서 어떤 意味와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놀이의 기능은 이처럼 어린이를 寬容的, 協同的으로 만드는가 하면, 아울러 童요의 사설 속에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즐거움·피로움을 서로 나누는 내용이 상당량에 이르고 있다. 이 사설을 되풀이하여 노는 가운데, 어린이들은 隣助協同의 정신을 배우면서 그들의 정서는 점차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정서가 아름다와질 뿐더러, 憤怒와 煩悶도 없어지는 二重的인 機能을 놀이는 감당하게 되는 터이다.

32. 同類 意識

- | | | | |
|---|-------|----------------------------|--------------------------|
| ㉔ | 평평 | 장서방 | |
| | 새끼들은 | 많-고 | |
| | 먹을 것은 | 없-고 | |
| | 숫가락은 | 적-고 | |
| | 엇치크름 | 사는가 (木浦地方) ³⁷⁾ | |
| ㉕ | 주둥이는 | 로쪽해도 | |
| | 말한자리 | 못해봤네 | |
| | 육발은 | 달렸으되 | |
| | 십리길을 | 못가봤네 | |
| | 덕통은 | 지냈으되 | |
| | 딱지 한자 | 못써봤네 | |
| | 동어리는 | 넓적하되 | |
| | 돌한명이 | 못져봤네 (谷城地方) ³⁸⁾ | |
| ㉖ | 덕으나 | 입으나 | 동동 |
| | 벗으나 | 굶으나 | 동동 |
| | 동그대 | 당실 | 동동 (濟州地方) ³⁹⁾ |

어린이들은 가끔 그들이 부르는 동요속에 자기자신을 投影하는 수가 있다. 평을 보면서 노

36) 張秉琳; 위의 책, p.124.

37)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1. 謠 522.

38) 金素雲; 위의 책, 謠 558.

39) 筆者蒐集.

태한 ⑫는 도처에 나타난다. 썩의 생활실태를 보면서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그들의 食生活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못 궁급해 한다. 어른들처럼 절실하지는 못하다손치더라도 日常 부딪치는 生活苦는 어린이들 자신도 대체로 느껴 아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⑬은 이(虱)를 보면서 입은 가졌지만 제대로 말할 줄도, 여섯개의 발은 가졌어도 먼 길을 갈 줄도, 먹통은 가졌어도 따지(地)자 한자 제대로 굴 쓸 줄도, 무거운 짐을 운반할 줄도 모르는 처지를 「익살스럽게 노래하는 가운데 노래하는 자기자신과의 同類意識을 느낀다.

어린애를 어른처럼 제대로 먹으나 못먹으나, 제대로 입으나 못 입으나 우리와 同苦同樂하자는 意識이 ⑭에서 또한 드러난다.

兒童期에 이르게 되면, 어린이들은 대체로 사내애는 사내애들끼리, 여자애는 여자애들끼리 어울려 지내게 되는 바, 이를 「類同의 引力」(the attraction of likes)이라 하거니와, 어린이들은 역시 어린이들답게 자그만 動物에 관심을 갖는다. 새나 벌레에 따른 노래가 많고 큰 짐승 四足獸 노래가 적은 것도 그들의 同類意識에서 말암암은 것으로 안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⁴⁰⁾

33. 樂天的 快朗性

兒童期 어린이들의 性格的 特徵은 自己中心的이요 自己肯定的인가 하면 快樂主義이요, 抑止的 傾向이 없다는 점이다. 快樂主義的인 점은 모든 어린이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성향이다. 한국 전승동요에서도 이 樂天的 快朗性은 흔히 드러난다.

⑮ 떡해 먹자 부-엇
양식 없다 부-엇
걱정 말게 부-엇
꿰다 하지 부-엇
언제 갈게 부-엇
갈에 갈저 부-엇 (京畿)⁴¹⁾

⑯ 끝끝 썩서방
자네 집이 어뎨고
요산 넘어 솔부닥릴
따뜻한 내 집일세
무엇 먹고 사느고
앞뜰에 콩 한섬
뒷뜰에 풀 한섬

40) 蕨田義雄; 「やらべ頃考」, カワイ樂譜, 1961, p. 379.

41) 金素雲; 앞의 책, p.28.

아들 낳고 딸 낳고
 명주 낳고 베 낳고
 그럭저럭 사-네 (慶北)⁴²⁾

- ⑰ 양숙 읍다 부-영
 내일 모레 장이다
 걱정 말고 있거라
 우리 친정 가고지라
 너거 친정 네 가라오
 무슨 입승 입고 가고
 금수 비단 입고 가지
 무슨 머리 없고 가지
 복두 머리 없고 가지
 무슨 신을 신고 가고
 맹숙랭이 신고 가지
 머로머로 타고 가지
 쌍가마로 타고 가지
 앞에첼랑 뉘고 밋고
 앞집머슴 메고 가지
 뒤첼랑은 뉘고 밋고
 뒷집머슴 미고 가지
 아가도통 뉘가 업고
 이웃아기 업고 가고
 후행울랑 뉘가 가고
 늙은후행 내가 가지
 우리집은 뉘가 보고
 묘두람이 지가 보지 (慶南 威安)⁴³⁾

- ⑱ 풀무- 셋무
 서울 갔다 오다가
 닭 한마리 잡아서
 텃밭세에 끼웠더니
 쥐가 물어 갔는지
 평이가 물어 갔는지
 원다리하구 대가리하구만
 싹 냉겨웠구나
 그리구 새-구
 우리 얘기 생일날

42) 金素雲; 앞의 책, p.28.

43) 林和; 「朝鮮民謡選」, 學藝社, 1939. 3. p.179.

갯가매에	살아서
너하구	나하구
소금꺾어	바-삭
장꺾어	골-작 (平壤地方) ⁴⁴⁾

⑬ 동무동무 새동무
 날모른날 개동무
 찌그려지고 낡은집
 허물어지고 보면은
 큰집 작은집 개여놓고
 네랑나랑 살자 (郡山地方)⁴⁵⁾

⑭ “평평 장서방
 어찌어찌 살삼소녀”
 “내가 어찌 몬 살리오
 삼년 묵은 저실 밧되
 오년 묵은 저실 밧되
 의염의염 돌단 보난
 콩 혼방울 좃어 먹곡
 삼각산의 놀곡 강
 삼천강의 집울 짓곡
 은가락지 좃어 불명
 가시낭은 견어 불명
 뒷문 널되 대문 내곡
 대문 발레 장황 농곡
 장황 우회 극 울령
 그 우회 내가 앞앙
 내가 어찌 몬 살리오”
 손지아기 잔 드리라
 메놀아기 방에 지라
 뚫아기 조세 할라
 내가 어찌 몬 살리오⁴⁶⁾

(濟州市 二徒洞 女 60 高인숙)

44)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第一書房, 1933. 1. 謠1658.

45)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6. p.490.

46)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12. p.365.

語釋: “평평	장서방
어찌어찌	살고 있소”
“니가 어찌	못 살리오
삼년 묵은	겨울 밭에
오년 묵은	겨울 밭에
구석구석	돌다 보니
콩 한알	주워 먹고
삼각산에	날고 가서
삼천강에	집을 짓고
은가락지	주워 버리며
가시나무는	걸어 버리며
뒷문 낼 데	대청문 내고
대청문 정문에	장독 놓고
장독 위에	흙 올려
그 위에	내가 앉아
내가 어찌	못 살리오
손자 아기	잔 드러라
머느리아기	방아 쪼어라
팔아기	재통부려라
내가 어찌	못 살리오”

樂天主義의 靑은 兒童期 어린이들의 일반적 성향이다. 한국동요에서도 快朗의인 색채를 띠게 술하게 나타난다. 韓民族은 그 내면에 悲哀를 먹고 있다든가, 韓國文學의 특질에는 ‘가냘팜과 애달팜’이 깔렸다는가 하는 말은 숲을 보되 숲전체를 보지 못하고 숲속의 나무만 보고 숲이라 착각하는 격이 아닐까. 그 뿌리부터 再檢해 볼 일이다. 47)

⑮⑰은 부엉이 울음을 흉내내면서 양식 없다고 딱해 먹을 일 제념하여 미워두느니보다 꾸었다가 가을에 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樂天性이 엿보이는가 하면, ⑯㉔에서 보는 평노래는 평과의 문답이면서도 동시에 자기자신의 投影이기도 한 것이다. 그 思考가 썩 健全할 뿐더러 生産的이다. 自足·自彊意識이 드러나는가 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가려는 意志가 뚜렷이 드러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⑱에서도 쥐인가 고양이에게 뜯기다 남긴 닭고기이지 마는 얘기 생일날 그런 대로 즐기자는 의욕이 어련히 드러나 있으며, 집이 허물어졌다고 낙담할게 아니라 다시 집을 마련하여 너와 나와 재미 있게 살자는 生活意欲이 진실하게 드러나 있다.

47) 이 문제는 따로 논의해 보려 한다.

이러한 自己肯定的 樂天性을 곱다랗게 키워 나갈 때, 青年期에 이르러서의 主体危機(identity crisis)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樂天的 快朗性은 진진한 青年文化의 형성에 도움되는 것이므로 거침없이 활용해야 할 것이다.

34. 水平的 民主意識

어린이들은 民主主義의 信奉者다. 대등한 사이에서 즐기는 게 어린이들로서는 즐겁다. 그리 인(E. H. Green)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좋은 동무는 平均보다 많이 싸운다는데, 이 싸움만 하더라도 友誼的 社交의 일부인 셈이다. 사내애는 사내애들끼리, 여자애는 여자애들끼리 交友關係가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이른바 「類同의 引力」(the attraction of likes)이라 해서 民主意識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民主的이기 때문에 그들의 興味는 항상 高調된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지더라도 구슬치기·팽이치기·연날리기·교무줄놀이·인형놀이 등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도 民主的 興味가 그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이 自己를 실현하는 수단인 하나로 놀이가 선택되는 터이다. 어린이들은 벗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集團에 자기를 동화하는 힘을 기른다.

- ㉑ 승년의 흰죽은
아이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아이들은 배터겨 죽고
어른은 배골아 죽고 (全北)⁴⁸⁾

- ㉒ 기력아 기력아
네 새끼 등 뒤에
범 따라간다

기력아 기력아
앞선놈은 뒤에 서고
뒤에 선놈 앞서라

기력아 기력아

48) 金素雲; 「口傳童謠選」, 博文書館, 1940. 5. p.120.

네 새끼 등 뒤에
범 따라간다. (禮山地方)⁴⁹⁾

㉔ 앞의 가는 건 도둑놈이여
조름에 가는 건 순서여
(濟州 中文面 中文里 女75, 李英玉)⁵⁰⁾

흥년에 흰죽이 생겼을 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그릇씩 나눠 먹는다든 식살 속에서도 ㉔에서는 民主意識이 뚜렷한가 하면,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 先後를 다툼이 없이 사이 좋게 날기를 바라고 있는 ㉔㉕에서도 民主意識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노래 들은 전국에 흩어져 전승된다. 지역에 따라 年令階層에 따라 그 표현방법의 차이가 일부 드러날 뿐이다. 한국내 전 지역뿐이 아니라, 日本 全國에도 번져 있다.⁵¹⁾

韓日 어디서든 “앞선놈은 뒤에 서고/뒤에선 놈 앞서거라” 혹은 “큰 기러기는 먼저/작은 기러기는 뒤에” 라고 사이 좋게 하늘 날으는 기러기떼의 情景이 알뜰하게 노래되고 있다. 어린이들 끼리 사이 좋게 노는 정겨운 愛情이 고스란히 投影되고 있는 터이다. 실로 어린이다운 水平意識이 따스하게 흐른다. 앞선 놈이든 뒤선 놈이든 기러기의 先後는 반드시 정해진 바 없다는 사실은 人間社會의 民主意識이 꿈다랗게 그려져 있기도 하다. ㉔에서는 말만 들었어도 두려움부터 앞섰던, 지난날 巡查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념이 잘 드러났다. 罪人護送의 광경을 연상한 것인데 남을 앞지르려고만 덤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人間社會의 生活秩序를 은근히 교훈하고 있기도 하다.

35. 秩序意識

어린이들은 벗들과 어울리어 공동으로 놀이하는 가운데 生活秩序를 배운다. 집단과 서로 협동하고 집단에 자기를 동화시키는 가운데 놀이를 통하여 집단의 道德的 規準을 배우고, 학교나 사회에 있어서의 善惡判斷에 대한 集團的 思考를 배운다. 어떤 경우보다도 놀이를 통해서 재빨리 規則을 배운다. 더구나 동요의 사실에서 보면 秩序를 익혀 주는 내용이 꽤 드러난다. 그들의 秩序意識은 어른들의 세계보다 훨씬 非寬容的이라는 사실이다.⁵²⁾

49) 任東權; 앞의 책, p.326.

50) 金榮教; 앞의 책, p.375.

51) 藪田義雄; 앞의 책, pp.349~350.

雁, 雁, わたれ,

大きな雁は先に

小さな雁はあとに

仲よくわたれ。(全國)

52) 金正律; 앞의 책, p.211.

㉞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깡깡대 굴
까떡다가
목걸려서
수박사러왔네
수박발갈리
이제야갔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사러왔네
수박심으리
이제야갔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사러왔네
수박남기
이제야났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사러왔네
수박꽃하나
이제야피었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꽃하나
이제야피었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사러왔네
수박한개
이제야맷혔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사러왔네
수박이제야
주먹만했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사러왔네
수박이제야
대굴만했소

마마절사
어떤놈이오
그제왔던그놈이오
무엇하러왔나
수박사러왔네
수박이제야
동이만했소
그러면되었네
뜯 - (平南 江西)⁵³⁾

㉔ 큰 놈아	주례산이 불어 도라
죽은 놈아	주례산이 불어 도라
큰 년이랑	큰 멍석 물꼭
죽은 년이랑	죽은 멍석 물라
큰 년이랑	큰 배개 배꼭
죽은 년이랑	죽은 배개 배라

53) 林和; 앞의 책, pp.190~192.

큰 년이랑	큰 허벅 지곡
족은 년이랑	족은 허벅 지라
큰 늬이랑	큰 주례 불꼭
족은 늬이랑	족은 주례 불라(涯月邑 光令里 女 69, 梁正高祖母) ⁵⁴⁾

語釋: 큰 늬아	피리 불어 달라
작은 늬아	피리 불어 달라
큰 년일랑	큰 명석 말고
작은 년일랑	작은 명석 말고
큰 년일랑	큰 베게 배고
작은 년일랑	작은 베게 배어라
큰 년일랑	큰 <허벅> 지고
작은 년일랑	작은 <허벅> 저라
큰 늬일랑	큰 피리 불고
작은 년일랑	작은 피리 불어라

㉔는 여러 아가씨들이 서로 앞에 사람을 쓰러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앞에 앉은 아가씨와의 노래로 화답하면서, 한 사람씩 메어내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놀이와 함께 부르는 이 노래를 천천히 보아갈 때 수박이 먹을 만큼 이뤄질 때까지의 질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수박 발을 같고, 수박을 심고 나면, 수박의 싹이 난다. 이게 차차 자라서 수박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주먹만큼 커진 다음, 대가리만큼 자라는가 하면, 동이만큼 커진다는 그 질서가 차례로 노래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수박을 먹기까지는 이 여덟가지의 절차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니, 어린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놀이하는 사이, 大自然의 攝理와 아울러 人間社會의 질서를 터득하게 되는 터이다.

㉕에서는 兄弟와 姉妹가 제각기 감당해야 할 일이 다름을 되풀이하면서 지적하고 있다. 큰 애는 큰 애의 몫을 다하고, 작은 애는 작은 애의 몫을 다하는데서 人間秩序는 아름답게 이뤄져 나갈 것임을 이 놀이와 사설을 통하여 터득하게 된다.

36. 아름다운 꿈

어린이들의 동요에 아름다운 꿈이 번져 호를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거니와 그 꿈은 너무나 소담스럽고 곱다.

㉖ 별하나 따서
구어서

54) 金榮教; 앞의 책, p.388.

불어서
망데기 넣고
하늘로 올라가지 (忠南)⁵⁵⁾
*“별들, 별셋…”하면서 열까지 한숨에 노래한다.

- ㉞ 별 하나 공공
나 하나 공공
널 모리 동동
호박 사레 가는 날⁵⁶⁾

(濟州 翰京面 新昌里 女64, 박재효)

譯釋: 별 하나 공공
나 하나 공공
내일 모레 *〈동동〉
호박 사러 가는날
*간절히 기다리는 모양

- ㉟ 호박꽃을 따서는
무얼 만드나
우리 아기 조고만
춧불 켜 주지 (忠州地方)⁵⁷⁾

- ㊱ *담담은 감장수
외지 팔고 감 팔아라
아가 아가 우지 마라
댕기 팔아 감 사주마 (固城地方)⁵⁸⁾
*담담한

- ㊲ *질로질로 가다가
바늘 한개 주었네
주은 바늘 버릴까
요즘 바늘 휘여서
뉘시 하나 되었다.
물리었네 물리어
잉어 한마리 **물렀다
물을 두말 붓고서
죽을 끓여 맛있게

55) 金素雲; 앞의 책, p.106.

56) 金榮教; 앞의 책, p.401.

57) 박두진; 앞의 책, p.70.

58) 박두진; 앞의 책, p.234.

삼년 동안 놔두고
언제든지 나역자 (長興地方)⁵⁹⁾
*길로길로 **몰렸다.

㉞ 형님 덩님
서울 갔다 오시드니
갑사 당기 하나
꽃신 하나 사왔네
꽃신은 나 주고
당기는 시집갈 누나 준다네
아이공 다이공
장동 통동 (天安地方)⁶⁰⁾

㉟ 새야새야 파랑새야
뜨럭끝에 노는새야
분을 주랴 연지 주랴
분도참고 연지참고
금봉채나 찢러다고 (忠南)⁶¹⁾

별을 따서 망태기에 넣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고운 꿈이 ㉞에는 서려 있는가 하면, 지난날의 어린이들은 호박 사다가 끓여 먹는다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 (㉞) 호박꽃을 따서 아기 옷불켜주겠다는 發想도 곱다랴거니와(㉞) 어머니가 장에 가서 감 사다 주길 바라는 게 예전 어린이들로서는 큰 바람이었다. (㉞) ㉞에서 바늘 한개를 주어서 냐시를 만든 다음, 잉어를 낚고 먹는다는 익살스런 표현 속에서는 곱다란 꿈이 그려졌다. 꽃신과 멍기도 예전 어린이들로서는 커다란 꿈인가 하면(㉞), ㉞에서는 성숙한 여인이 결혼을 원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꿈은 관념적이지요. 허황한 것일 수 없다. 日常生活에서 부딪치는 자그만 바람이 곧 어린이들의 꿈을 이룬다.

37. 깊은 愛情

전승동요에는 또한 따스한 愛情이 철철 넘친다. 그 愛情은 父母兄弟 특히 어머니를 그리는 게 많은가 하면, 벗과 이웃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童謠의 분류에 있어서도 戀母謠, 父母·兄弟, 家族謠, 追慕, 사랑노래 등을 독립된 분류항목으로 설정하는 예가 많다. 어린이들이 깊은 愛情을 노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여기서는 그 몇 편만을 보기로 한다.

59) 박두진; 위의 책, p.254.

60) 박두진; 앞의 책, p.317.

61) 金素雲; 앞의 책, p.141.

- ㉔ 아방은 줄동이
어멍은 잎동이
아들은 덩드렁동이
딸은 꽃동이⁶²⁾

(濟州市 健入洞 女63, 金達永母)

語釋: 아버지는 덩굴동이
어머니는 잎동이
아들은 *〈덩드렁〉동이
딸은 꽃동이

*땀땀하고 미끄닥하여 동굴넙적한 짚을 두드리는 들판. 여기서는 ‘호박’을 이에 비유하였음.

- ㉕ 다풀다풀 다발머리
해가질듯 어디가나
우리 엄마 산소등에
젓 먹어로 나는 간다 (陝川地方)⁶³⁾

- ㉖ 엄마엄마 울엄마야 날날적에 닭고기를 먹었는가 달달이도 보고지고
엄마엄마 울엄마야 날날적에 말고기를 먹었는가 말꿀마다 보고지고
엄마엄마 울엄마야 날날적에 물고기를 먹었는가 물물이도 보고지고
엄마엄마 울엄마야 날날적에 소고기를 먹었는가 속속이도 보고지고
(江原道 洪城)⁶⁴⁾

- ㉗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마문에 비들치고
다홍치개 어룡진다 (東萊地方)⁶⁵⁾

- ㉘ 울아버지 가는 길에
소주탁주 걸렸거라
울어머니 가는 길에
무명송이 걸렸거라
우리형님 가는 길에
연지분이 걸렸거라
우리오빠 가는 길에
황금명이 걸렸거라

62) 金榮敦; 위의 책, pp.401~402.

63)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p.701.

64) 趙東一; “民謠: 童謠”, 「서울評論」, 제45호, 서울신문사, 1974. 9. 19.

65) 金思燁, 崔虎壽, 方鍾鉉; 앞의 책, p.220.

이웃업마 가는 길엔
호랑범이 앉았거라 (京畿)⁶⁶⁾

㉞ 우물가엔 나무형제
하늘에는 별이형제
우리집엔 나와언니
나무형젠 열매맺고
별형제는 빛을내니
우리형제 뉘를할꼬 (平壤)⁶⁷⁾

㉟ 새는새는 낭게자고
지는지는 궁게자고
각씩각씩 새각씩는
신랑품에 잠술자고
우리같은 아이들은
엄마품에 잠술자고

새는새는 낭게자고
지는지는 궁게자고
들에붙은 딱접이나
낭게붙은 술방울아
나는나는 어메자고
우리업마 품에자지 (東萊地方)⁶⁸⁾

㉞ 에 있어 아버지는 호박줄기요, 어머니는 호박잎인가 하면, 아들은 호박 그 자체이며, 딸은 호박꽃이라는 家族愛의 적절한 비유 앞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는가 하면, ㉟ 에서처럼 엄마를 그리는 나머지 엄마 산소에 젖먹으러 간다는 대목은 피엄피엄 드러난다. 여윈 엄마를 보고 싶은 심정이 語戲的 表現을 통하면서 ㉟에서는 절절이 노래됐는가 하면, 비가 내릴 때 부르는 ㉟같은 표현도 전국에 흩어져 있다. ㉟에서는 부모형제가 소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하면, 兄弟姊妹의 友愛가 반짝이는 별들과 비유되면서 곱다랗게 노래되는 게 ㉟의 동요다. 또한 戀母의 정을 ㉟에서는 곱다랗게 그려놓았다.

嬰, 幼兒期에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갖가지 心理的인 防禦機制(mental defence mechanism)를 적절히 이용하여 건전한 人格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부

66) 金素雲; 앞의 책, p.7.

67) 高晶玉; 「朝鮮民謡研究」, 首善社, 1949. 3. pp.489-490.

68) 金思惺, 崔常壽, 方鍾鉉; 앞의 책, p.219.

더 벗들과의 상호적응(mutual adjustment of equals)을 통하여 社會的 道德性을 배우는데 이때 놀이가 지니는 그 機能은 썩 놀라운 것이다. 더구나, 그 전승동요에 드러나는 (1) 隣助協同意識, (2) 同類意識, (3) 樂天的 快朗性, (4) 水平的 民主意識, (5) 秩序意識, (6) 아름다운 꿈, (7) 깊은 愛情은 한결같이 애들의 成長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해 왔다. 더구나, 이런 전승동요들은 就學前 어린이들도 즐겨 부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요, 敎育과 心理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知的發達은 8세이전에 그 80%가 이루어지며, 어실픈 文化環境에서 그 適期를 놓쳤을 경우에는 發達의 不可逆性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⁶⁹⁾ 우리는 바람직한 靑年文化를 이땅에 定着시키기 위하여 다만 靑年期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問題視할 게 아니라,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滋養을 공급해 줄 것인가를 熟考할 필요를 느낀다. 바람직한 전승동요를 교과서에 대폭 삽입하고 이를 즐겨 부르고 놀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38. 要 約

1.0. 오늘날 靑少年들의 문제는 世界性을 띠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요마적 2,30년 사이 近代化 기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은 逆機能이 크고 正體危機의 심각성이 따른다.

1.1. 그 正體危機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韓國靑少年文化의 定立이 시급하며, 그 한 방법으로 文化遺産의 하나인 전승동요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다만, 그 수집연구가 여태껏 본격화되지 못했으므로, 이런 계제에 한국전승동요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分析作業을 試圖함은 그 작업의 한계를 스스로 안게 마련이다.

1.3.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의식을 밝히는 방법은 갖가지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題材別 分析과 그 主題에 드러난 두드러진 의식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려 한다.

2.0. 韓國傳承童謠에 담긴 意識을 살피기 위한 한 방법으로 몇 분의 전승동요 분류안을 참고 하면서, 그 題材分析을 試圖해 볼 수 있다.

2.1. 金素雲·任東權·박두진의 分類案을 참고하면서, 필자는 한국의 전승동요를 ① 動植物謠, ② 天體·氣象謠, ③ 遊戲謠, ④ 諷笑謠, ⑤ 語戲謠, ⑥ 자장가, ⑦ 其他謠로 나누는 게 우선 무난할 듯하다는 확신이 섰다.

2.2. 動植物謠와 天體氣象謠는 다같이 자연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自然謠라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은 이 自然謠를 즐겨 부르며 노는 사이에 道와 德과 秩序를 배운다.

69) 韓國行動科學研究所; 「國家發展과 어린이」, 1976. 8. pp.9~41.

2.3. 또한 諷笑謠와 語戲謠는 일종의 말놀이이므로, 넓은 뜻으로는 遊戲謠에 포함된다. 自然謠(動植物謠·天體氣象謠) 역시 어린이들의 靜的, 動的인 한갓 놀이로 불리지므로, 傳承童謠의 主宗은 遊戲謠라 말할 수 있다.

2.4. 따라서, 한국의 전승동요는 자연을 무대로 하거나, 집단적 놀이 그 자체를 위한 遊戲謠라고 말할 수 있다.

3.0. 민요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몇몇 동요집중에 수록된 동요를 살펴다 보면, 동요에서도 여러 패턴의 의식을 간추려낼 수 있다. 동요에 드러난 청소년의 의식 가운데 두드러진 바는 ① 隣助協同意識, ② 同類意識, ③ 樂天的 生活意慾, ④ 水平的 民主意識, ⑤ 秩序意識과 더불어, ⑥ 아름다운 꿈과 ⑦ 깊은 愛情등을 내세울 수 있다.

3.1. 어린이들은 傳來的 韓國社會에서의 친족과 이웃끼리의 協扶意識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채 동요로 쏟고 있다. 서로 돕고 괴로움을 서로 나누는 내용의 사실을 즐겁게 노래하며 集團的인 놀이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寬容化, 協同化의 정신을 배운다.

3.2. 전승동요에 보면, 또한 同類意識이 꽤 드러난다. 많은 노래의 내용에서도 살필 수 있거니와, 四足獸를 제재하기보다, 자그만 동물을 노래하는 경향이 많음도 또한 同類意識에 근거함인 줄 안다.

3.3. 또한 한국의 전승동요에는 樂天的 快朗性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樂天性은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일반적 성향이겠지만, 한국 전승동요의 경우에는 그 快朗性에 멋이 깃들여 있다.

3.4. 어린이들은 民主主義의 信奉者다. 水平的 民主意識이 길게 깔렸는가 하면, 「類同의引力」(the attraction of likes)에 따른 交友 또한 민주주의에 터진 것이다.

3.5. 한국의 어린이들은 '벗들과 어울리어 뛰놀면서' 道德的 規準과 集團的 思考를 배우며 익히는 가운데, 生活秩序를 길게 터득해 간다.

3.6. 전승동요 가운데는 곱고 소담스러운 꿈이 흐른다.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꿈은 관념적이지요, 허황한 게 아니라, 우선은 비록 자그맣더라도 일상적, 구체적인 것이다.

3.7. 또한 전승동요에는 父母兄弟 특히 母情으로부터 출발하여 벗과 이웃으로 擴散되는 따스한 愛情이 넘친다.

— Summary —

A Study of Youths's Attitudes Reflected in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Yong-jun Hyeon · Young-don Kim

1.0. Today, the problems of youth are a worldwide issue. In the case of Korea, its rapid modernization during the past 20 or 30 years has had harmful side effects, resulting in crises that are typical in a modernizing society.

1.1. To overcome the such crises, Korea's youth culture must be integrated into society as soon as possible. we can utilize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one of our cultural inheritances, as a method to overcome these crises.

1.2. Since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has not yet been collected and studied on a scale, there are limits to this attempt to analyze Korean youths' attitudes in the structure of Korean oral folktales.

1.3. There are various ways to analyzing youths's attitudes in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This essay will put emphasis on analyzing folktale materials and on disclosing youths's attitudes in the themes of these tales.

2.0. By consulting several classification schemes of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materials can be analyzed as one method of studying the structure of attitudes in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2.1. In regard to *Kim So-woon's*, *Im Dong-kwon's* and *Park Doo-jin's* classification schemes,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are divided into seven parts, including the following:

1. Songs of animal & plants, 2. songs of the celestial sphere & atmospheric phenomena, 3. songs of merrymaking, 4. songs of satire, 5. songs of language, 6. cradlesongs, 7. others.

2.2. songs of animal & plants, and of the celestial sphere & atmospheric phenomena, can be said to be "songs of nature" since the two songs celebrate nature. Children learn morality, virtue and public order in the course of enjoying themselves while singing the "songs of nature".

2.3. The songs of satire and language are "language songs" of a sort. Therefore,

broadly speaking, they refer to merrymaking. Since songs of nature (songs of animal & plants, and of the celestial sphere) are dynamic and static songs for children, the main songs of Korean orally-handed-down can be said to be songs of satire.

2.4. Therefore, most of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are songs of nature, or songs of merrymaking

3.0. Though orally-handed-down children's in the category of nursery rhymes are not as clear as songs, youths's attitudes in orally-handed-down children's can be divided into several patterns. The most striking patterns of youths' attitudes are here:

1. attitudes of cooperation, 2. attitudes of same sort, 3. attitudes of optimistic life, 4. attitudes of liberal democracy. 5. attitudes of public order, 6. attitudes of beautiful dreams, 7. attitudes of deep love.

3.1. Children learn and enjoy their songs while learning attitudes of cooperation from their family and from neighbors. They also learn the sprit of generosity by developing their contribution to society in the course of singing songs of joys and sorrows, and while living in a group.

3.2. Attitudes of same sort are often presented in the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and in the many songs. Notably, regarding attitudes of same sort, most of the songs were not about big, four-legged animals, but about small animals.

3.3. An optimistic cheerfulness is remarkably present in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The cheerfulness is typical of a child's inclination toward the world. In addition,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characteristically reflects zest in addition to cheerfulness.

3.4. Children are devotees of democracy. They are attracted to equality as well as the having attitudes of liberal democracy.

3.5. Korean children learn the conventions of social life in the course of familiarizing themselves with the moral canons and the thought manners of their peer group.

3.6. There are beautiful and attractive dreams in the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Children's dreams are not ideological and unreliable, but substantial and actual even when they are small in scale.

3.7. Finally, in Korean orally-handed-down children's songs, there is evidence of affection spreading to friends and neighbor from parents, affection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and especially of a mother's devotion.